

소년부
체육대회

교회의 미래, 어린이!



지난 14일, 3부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운동장 한편에서는 소년부 체육대회가 열렸다. 예배를 마친 어린이들은 힘찬 구령에 맞추어 운동장을 뛰어놀았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작 그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많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힘찬 함성을 부르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20년 후 40주년을 맞을 주님의교회의 성장한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때 즈음이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장성한 어른이 되어있을 것이다.

최사라 기자

어와나
자동차
경주

“가장 빠르게” “가장 아름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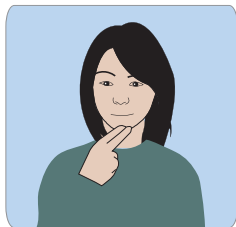
지난 13일, 3층 소년부실은 어와나클럽 어린이회원들과 부모님들로 가득 찼다. 우리교회에서는 처음 열린 자동차 경주대회, 그랑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와나친구들은 스피드와 디자인 두 부분의 실력을 겨루기 위해 몇 주 전부터 바쁜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고 한다. 직육면체의 나무도 막과 바퀴만을 배분 받은 어린이들은 각자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다. 이를 위해 부모님들은 조각칼과 톱을 구입하여 상처를 내면서 까지 열심히 만들었고, 몰래 목공소에 맡긴 이야기며, 이 일로 부부싸움을 해야 했던 사연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남기며 성황리에 마쳤다. 대회에 참여한 120여개의 자동차는 주일 아침 로비 앞마당에 전시되어 성도들에게 그 솜씨를 자랑했다.

하태원 기자



있다 [have, there be]란 뜻이에요
오른손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
엄지를 코 끝에 대면 있다 란 뜻입니다



없다 [don't have, there be not]란 뜻이에요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펴
턱에 대면 없다 란 뜻입니다

하프타임
어르신잔치

“교회에 어르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한다. 여태까지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편안히 믿음 가운데 즐겁게 살아왔다.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10월 9일 (화) 하프타임 사역팀에서는 2007년 어르신 섬김의 잔치를 열었다. 70세 이상 어르신 80여분과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박원호 담임목사는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풍성한 느낌이 든다 했다. 젊은이들에

게 신앙의 지표가 되심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감사한다고 했다. 여생 동안 서로 회묵하기를 힘쓰고 믿음이 더욱 자라가며 사회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하시기를 바란다 했다.

식사 후 짧은 여흥 속에 스트레스를 풀었다.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예쁘게 울동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즐거운 마음과 고우신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실 수 있기를 기도했다. 노래 [고향의 봄]을 부를 때 이북의 고향을 두신 어르신은 고향 생각으로 눈가에 눈물을 흘리셨다. 참가한 어르신들은 마치는 아쉬워 하며 자주 이러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랑은 받으면 무척이나 즐겁고 좋아진다. 또 사랑을 준다는 것도 얼마나 좋은 특권인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같이 나누어 즐거웠다는 덕담을 남기며 발길을 집으로 돌려야 했다. 이 번 행사는 은혜부페에서 150명 어르신들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신형섭 기자

중보기도 사역 기도모임

“주님을 바라보라”



10월 11일 목요일 이호목사의 찬양 인도로 200여 성도가 오후 1시부터 3시 30분

까지 강사로 온 박춘태 목사의 말씀을 들었다.

소예배실을 가득 매운 참가자들은 마태복음 26장의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베드로의 실수는 나의 모습을 재조명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내가 얼마나 잘난 체, 가진 체, 아는 체를 하면서 교만했는지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연약한 우리

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겸손해 지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모습임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제 중보기도자로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중보기도할 때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이 중보기도가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다.

중보기도는 손해 보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는 귀한 시간임을 알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며 그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중보기도의 사역이 분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임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최종명 안수집사(3·3)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수화 통역이 가능한 성도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재능의 풍성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재능은 소중합니다. 주님의교회 장애인부에서는 10월 첫 주부터 많은 청각 장애우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수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이 가능하신 분과 수화에 관심 있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문의: 신형섭 안수집사 019-628-7957

행복한

구역
모임

4-5 구역모임



낙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고통 받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귀한 모임 4교구 5구역은 주의 나라를 향해 진격하는 십자가 군병들의 소대(小隊)다.

지난 10월 12일, 신화식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구역모임은 신방을 겸한 자리여전히 평상시보다 많은 구역식구들이 자리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시간

이었다. 예배 후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서로 승리한 삶의 간증을 통해 신앙 안에서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자며 서로를 격려했다. 4교구 5구역 구역원들간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다. 비록 오래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만큼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날로 발전하는 교회 부흥의 전초기지 역을 충실히 하고 있고 전도의 마당으로 끊임없이 새 신자를 인도하고 있다.

주님은 준비된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기때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세상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지 않도록 구역장님의 적절한 조절 속에서 서로 간의 어려운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4교구 5구역은 주님의 교회 구역 예배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자리매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구역으로 자라날 것이다.

김계선 집사(4·5)

|오늘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 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편 102:12-14

통 권 제 216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10월 21일

함즐함울

www.pcltv.org



〈어르신 잔치〉

10월 9일, 섬기의 잔치에 참석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식사 후 다 함께 공동체게임에 참여하며 큰 웃음을 짓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로 템 나 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3:11)

지난해 늦가을에 화분에 있던 국화를 땅에 심어놓았다. 땅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 겨울에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 보았다.

올 봄에 파릇파릇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참 반가웠다. 나란히 심어놓은 국화는 똑바르게 잘 자라났다.

그런데 여름의 비바람에 자꾸만 쓰러졌다. 지지대를 세워서 묶어 놓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중에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두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꽃을 피우는 국화의 모습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만들려고 했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마치 나의 삶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작품이 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자. 그분의 숨씨로 빛어지는 나의 삶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님!

맑고 푸른 가을의 하늘아래 펼쳐지는 당신의 숨씨에 감탄합니다. 작은 새와 같은 저를 보살피시는 당신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엄혜숙 기자

담임목사 위임예배

“새롭게 도약하는 시대의 시작”



제 4대 박원호 위임목사

2007년 10월 28일(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주님의교회 제4대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드려진다. 주님의교회는 2006년 9월 이후,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위원회를 결성해 일련의 과정을 통해 후임목회자를 확정했고 제직회, 공동의회를 거쳐 교회가 박원호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에 평양노회 주관으로 드려지는 이 예식은 지난 6월 17일 부임한 박원호 목사를 주님의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인준하는 최종적인 절차이다. 이로써 박원호

목사는 주님의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장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위임예배는 그동안 임시당회장을 맡았던 성홍모 목사의 인도, 전 장로회신학대학 총장인 서정운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며 노회와 교계의 손님들이 초대된다. 물론 주님의교회의 온 성도들이 이 예식의 가장 중요한 손님이요 또한 주체라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이번 위임예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 해야 할 비전과 꿈을 품고, 또 한 번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날이 될 것이다.

이날은 노회와의 일정 조정으로 부득이 주일 4부에 배가 생략된다.

김현령 목사

"아는 것과 믿는 것"
모든 영혼을 위한
10. 21. (주일) 3:30 pm 대예배실 김현령 목사

갱년기... 여성건강 강좌
골다공증과 유방암 중심으로
2007. 10. 21. 3시~5시 (pm) 대상: 주님의교회 전교인 장소: 1층 소예배실

2007 주님의교회 새교사 대학
불가사리
불 -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가 - 가능합니다! 사 -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리 - 러열 Action~! 바로 당신입니다!
함께 불가사리를 던지실 분을 찾습니다

강의주	과목	담당자
1 10월 21일	기독교 교육이란?	박원호 목사
2 10월 21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유성훈 전도사
3 10월 28일	성경이란?	최학 전도사
4 10월 28일	교회는 누구인가?	전미애 전도사
5 11월 4일	예배는 어떻게 교회	김성욱 전도사
6 11월 4일	학령이란?	신상우 전도사
7 11월 11일	교수 학습지도	이희영 전도사
8 11월 11일	만 목회	임광순 전도사
9 11월 18일	교육 행정	정요섭 목사
10 11월 18일	교사의 기도 훈련	주석영 전도사
11 11월 25일	교사 투쟁회	박상진 교수명예
12 11월 25일	교사 어울림	

10월 21일
오늘은..

- ① 30집 찬양예배 | 〈아는 것과 믿는 것〉 3:30(PM) 대예배실. 설교: 김현령 목사
- ② 갱년기 여성건강강좌 | 3:00(PM) 1층 소예배실 강사: 박건 안수집사
- ③ 불가사리 | 〈주님의교회 새교사 대학〉 3:00(PM)기독교는 무엇인가(박원호 목사,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유성훈 전도사))

박원호 목사 주일설교

2면

나의 신앙이야기_김유호

3면

하프타임 어르신잔치

4면

행복한 구역모임_4-5

4면



온전한 신앙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가서4:1-5, 요한서 4:7-12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온 성도들이 항상 불리야할 거룩한 칭호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랑의 아픔이 치유되고 사랑의 수고들이 덜어지고 사랑의 소망이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이 인생을 통해 갖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은 신에 대한 것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는 영원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혹은 자연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없이 있다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허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나름대로의 다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를 가늠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사랑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본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와 심판과 축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심판과 징계와 축복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구성 요소입니다.

사랑의 능력

오늘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모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부모를 알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비로소 방황이나 공허함에서 벗어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오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성장의 의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도 참 다양하며 이에 따르는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랑에 빠진다는 것도 잘못 된 것입니다. 의존함도 참사랑이 아닙니다. 또 인격이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도 참사랑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을 전제한 자기희생도 참사랑은 아닙니다. 이처럼 그릇된 사랑을 구분한 스캇 펙 박사는 사랑을 자신이나 상대방의 영적성장을 목적으로 자신을 확장하려는 의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적성장의 의지입니다. 사랑은 수고 없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지요 결단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지

또한 사랑은 생명을 살리려는 의지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사랑의 모형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참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깊은 소망이 사랑의 주고받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와 책임으로 인해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인간존재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증거 하듯이 십자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소망을 이루고 아픔을 치료할 답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이루고 아픔을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사랑의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수고

이렇듯 사랑은 십자가, 즉 자기부인의 수고에 따릅니다. 운동선수와 음악가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해야 하듯이 목사와 교인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피차간에 수고해야 하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서 사랑의 수고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부활의 소망

사랑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찾아 오셔서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 속의 소망을 발견한 베드로는 그의 생의 마지막에 반석을 이루어 냈습니다. 십자가의 수고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온 성도들이 항상 불리야할 칭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였고 온전케 됩니다. 세상 또한 교회에게 이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용기를 갖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랑의 아픔이 치유되고 사랑의 수고들이 덜어지고 사랑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례신앙고백문 | 이정애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권고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매주 주일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을 뿐, 가슴 뜨거운 신앙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려 간다는 생각보다는 친구들과 놀 생각에 더 설레 하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라면서 성장과 정에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마저 끊어버리려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핑계로 또는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저를 지켜주시던 주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죄를 지으면서도 저를 바로잡아 주려는 가족의 사랑과 교회 선생님의 기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여고에 진학하게 되면서 일주일에 한번 씩 주님의 교회예배당에서 제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여태까지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제 마음이 항상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지만 가끔은 졸기도하고 껌데기만 앓아 예배드리고 간 적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기도하다가도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기도하면서 했던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맡고 있는 봉사일보다 늘 학교의 중간고사가 먼저였고, 교회를 빠지면 벌을 받게 될까봐 억지로 주일을 지킨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얕은 신앙을 숨기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나라도 정말 받아주시는지, 아직 나의 신앙에 자신이 없는 이런 상태로 세례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믿음이 좀 더 완벽해지면 세례를 받으려 했던 저의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고, 졸업을 앞둔 이번 학기를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이 죄인을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숙제를 하기 위해 매일 자기 전 성경을 읽고 짧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하면서 시끄럽게 머릿속을 메우고 있던 고민들이 가라앉았고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거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매달리는 저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지금, 이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30CUP 하늘공원소풍후기

“말할 수 없어도 통하는 마음”



예배 끝나고 30-Cup 사람들이 들쭉이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하늘공원에 갔다. 하늘공원은 억새축제를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올라가는 순간 그 많은 가파른 계단을 보니 막막했는데 다행히 큰 도로가 열려져 있었다. 숲을 감상하면서 올라가는 길은 끝이 없어 보였지만 어느덧 정상에 도착했고 그야말로 하늘 가까운 곳에서 하늘을 가깝게 볼 수 있었다 또한 정상위에 펼쳐진 그 많은 억새를 보니 신기하기 까지 했다.

아름다웠다. 사실은 날씨 흐리긴 했는데...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하필 이런 날 아침까지 맑았던 날씨가 오후에 비가 왔다. 늦게 도착했는지 구경을 많이 못했다. 힘들게 올라갔는데 처음 만난 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쉬움 남았다.

처음 참석한 30cup, 우리를 초대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동안 청각장애우들만의 만남 속에서 약간 소외감도 느꼈었는데... 또래들과의 또 다른 만남 속에서 즐거움을 느껴본 멋진 날들이었다. 우리들도 나를 어울리려고 노력했다. 말할 수 없어도 마음이 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언젠가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요!

노미선(416)



나/의신/앙/이/야기

10.14 2부예배
대표기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온전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몸소 죽으신 그 사랑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계속된 원망과 불 신앙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참아 주시고 귀한 성일을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예배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발버둥치고, 우리가 쌓아놓은 세상적인 가치들로 우리자신을 꽉 채우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름 석자를 드높이려 땀 흘리는 겉모양만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무례하고 인색하며 탐욕스러운 기독교인으로 비추어졌습니다. 진리를 등진 채 단지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왜곡된 믿음으로 만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목소리를 높이기전에 순종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주시옵소서.

지나간 이레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었으며 어

느 길로 행하였으며 어디에 앉았으며 무엇을 먹고 마셨으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지난 날을 묻지 아니 하시고 우리가 오늘 진실 할 때에 과거의 거짓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나무가 자라면 키가 크고 속이 단단해지듯이 우리도 세월이 가는 만큼 교회에 다니는 햇수만 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많은 이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사 우리를 공회로 보셨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중의 필부에 이르기까지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방자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 속에 나라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교회와 나라를 위한 지나친 걱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양적 성장

과 단기간 내에 반짝하는 실적을 추구하며 경전을 잃은 오늘의 교회에 경전을 일깨워 주시고 형식화되고 계산적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들의 손길에도 예수님의 피를 묻혀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온전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사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의 남은 시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맑은 가을 하늘의 깨끗한 구름 같은 아름다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김유호 안수집사(4-10)

